

GANGJIN 

Web Contents



목차

목차	2
-----	-----
보도자료	3
-----	-----
강진군, 고순도 '미호벼' 종자 14톤 공급	3
첨부파일(1)	3
-----	-----


강진군, 고순도 '미호벼' 종자 14톤 공급

작성일 2024.03.28 13:40

등록자 강진군청

조회수 16

보도자료 등록일 2024-03-28

첨부파일(1)  3.미호벼.jpg 1 hit/3.20 MB [다운로드](#)

강진군, 고순도 '미호벼' 종자 14톤 공급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산 미호벼 종자 선제적 확보

원료곡 품질 균일화 통한 브랜드쌀 경쟁력 제고

강진군이 올해 미호벼 생산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47개 재배단지, 75농가에 미호벼 종자를 배부한다고 28일 밝혔다.

군은 올해 최고급 브랜드쌀 원료곡 생산을 위해 관행재배 216ha, 유기재배 81ha, 총 297ha에 필요한 종자 18톤 중에 약 14톤의 종자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확보해 공급한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농촌진흥청이 설립한 공공기관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에서 개발한 유망 신품종 종자의 생산 및 신속한 공급을 담당하고 있다. 미호벼와 같이 특수 기능성 품종으로 분류돼 국립종자원에서 생산하지 않는 품종을 보급종 수준으로 공급하는 유일한 기관이다.

미호벼는 강진군이 민선8기 강진쌀 브랜드화를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벼 품종으로 아밀로스 함량 11.2%로 멥쌀에 찰벼를 섞은 것처럼 밥을 지은 후 오랜 시간이 경과해도 밥알의 찰성, 경도 및 윤기 등 품질 특성이 그대로 유지되는 식미가 우수한 품종이다. 2016년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했으며 10a당 평균 쌀 수량은 565kg으로 도복 및 내병성 등 재배 안정성이 높다.

군 관계자는 “브랜드쌀의 경쟁력은 원료곡 품질의 균일화를 위해 고품질 고순도의 종자를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군은 올해 재배면적의 약 75% 이상을 보급종 수준의 종자를 농가에게 보급한다”고 밝혔다.

농업기술센터 최영아 소장은 “고품질 벼 원료곡 생산의 시작은 고순도 종자 확보가 그 시작이다”며 “올해 시범적으로 생산하는 미호벼 원료곡을 안전하게 생산할 수 있도록 재배농가 집합 교육 및 현장지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http://www.gangjin.go.kr>)

한편 군은 2025년 필요 종자까지 이미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의 협조 아래 확보했다. 군농협통합RPC와 함께 농촌진흥청 국비 시범사업 및 자체사업을 통해 4억 7,000만원을 투입해 '미호버' 품종의 성공 정착과 프리미엄급 브랜드화를 위한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목록

COPYRIGHT © GANGJIN-GUN. ALL RIGHT
RESERVED.

GANGJIN

Web Contents

